

## 중국

내륙발전전략의 거점도시, '重慶직할시'의 등장

(홍성범)<sup>1)</sup>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에 대한 향후 전망시나리오가 다시 대두되고 있다. 지난 3월 미 RAND연구소는 2015년 아시아 주요국들의 경제규모에 대한 연구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우, GDP가 미국과 동일수준인 11~12조달러로 예상했다. 4월 호주 외무부가 펴낸 한 보고서에서도 향후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의 평균 경제 성장률이 연 3%를 계속 유지하고 중국이 '78년 이후 평균 경제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7% 성장을 지속한다면 중국의 총생산과 총구매력이 미국을 능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스스로의 평가도 후하게 나왔다. 중국사회과학원 「수량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는 2020년 중국이 구매력으로 환산한 실질 GDP에서 1위, 달러화에 대한 환율로 환산한 명목 GDP에서는 미국, 일본에 이어 3위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예측치는 현존하는 성장의 걸림돌이 어느 정도 제거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이야기다. 가장 큰 현인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격차문제이다. '先富論'에 입각한 연해지역 우선의 불균형정책이 가져온 결과 때문이다. 농민소요사태가 빈발해지면서 중국 수뇌부는 체제위기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1996년부터 시작된 9차5개년(9·5계획)도 이러한 불균형전략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기본전략을 구상하게 된 것이다. 내륙발전전략의 핵심은 양자강을 따라 연해지역의 성과를 확산 시킨다는 이른바 "揚子江 발전전략"이다.

등소평 사망후 최초로 열렸던 全人大(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5차 대회('97.3.3~14)에서는 양자강 발전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중요한 사안이 결정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97년 예산 결의, 농업법 실시상황에 대한 조사결의, 중사부 발전전략조치, 3대법률(형법수정초안, 국방법초안, 홍콩특별행정구 제9기전인대 대표단 선거방법초안)통과 등 이뤄졌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重慶市の 직할시 승격이다.

## 重慶직할시 승격의 의의

重慶이 北京, 上海, 天津에 이어 4번째의 직할시로 등장하였다. 기존 면적 2만3천평방km 인구 1천5백만명의 重慶市에 부릉市, 萬縣市, 黔江地區 등을 합쳐 총면적 8만2천평방km(제주도를 제외한 남한면적과 비슷), 인구 3천2만명의 세계 최대의 'Super City'가 지구상에 출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중격직할시의 탄생에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첫째, 四川省 동부지역, 중국의 남서부, 양자강 상류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초거대도시로서의 중경의 역할을 제고하기 위한 방편이다. 둘째, 사천성의 발전속도를 높이기 위한 유인작용이다. 실질적으로 기존 사천성의 과다한 인구(1억2천)와 면적은 행정관리와 사회경제적 발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중경시가 분리됨으로써 사천성은 기존의 서부지역에 집중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경영규모를 넘어선 사천성을 분할,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중앙정부의 시도로 해석된다. 셋째, 三峽댐 건설의 효율적인 추진체제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삼협댐 건설은 10년간 7백억원이 투입되는 중국의 세기적 프로젝트이다. 특히 댐건설로 발생하는 120여만명의 이주민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즉 중경경제권으로 원만하게 흡수시키는 임무가 주어지게 된다.

重慶직할시의 탄생은 정책의 중심이 연해지역에서 "揚子江을 타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내륙으로 본격 전환됨을 의미한다. 양자강 발전전략은 상해 포동지역을 '용머리'로 하고 중경을 '용꼬리'로 하는 기본구도로 짜여져 있다. 현자머리는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용의 실체를 갖추기 위해서는 꼬리 또한 제대로 활동을 해야만 한다. 실제로 양자강은 중경직할시의 한가운대를 관통하여 흐르고 있다. 중경의 발전은 雲南, 甘肅, 湖北, 貴州省 등 내륙 저개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경직할시의 기본 현황

중경은 양자강과 嘉陵江이 도시를 삼면으로 에워싸고 있어 중국 서남지역 수륙로의 교통중심지로 양자강 상류 최대의 공업·상업도시이며 중국 최대의 천연가스 화공기지, 군사공업기지이다. 주요 산업으로는 모터사이클, 화공, 0금 등이며 기계, 전자, 건축설비, 식품공업 등도 발전추세에 있다. 중경의 3대 지주산업은 기계, 야금, 화학공업0

며 대표적인 생산품은 모터사이클, 압연코일, 알루미늄, 합성재료, 정밀 화학제품 등이다. 그러나 다른 직할시에 비교해 보면 인구와 면적에서만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 전반적인 경제력은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경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이다. 우선 매장량이 막대한 40종 이상의 광물자원을 꼽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석탄, 천연가스, 스트론튬(strontium), 알루미늄, 마그네사이트, 석회암, 대리석, 스파(spar), 흑석, 석고, 수정, 수은 암연 등이다. 특히 스트론튬은 중국 1위, 세계 2위의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천연가스도 중국 1위이며, 매년 3,500

<표 1> 4대 직할시의 경제규모 비교

구 분	北京	上海	天津	重慶
인 구(만명)	1,125	1,356	935	3,002
면 적(만km <sup>2</sup> )	1.68	0.62	1.13	8.20
재 정(억위)	220	37	130	100
고정자산투자(억위)	824.08	1,790.81	360.89	320.69
'96 공업총생산(억위)	1,310.80	3,515.58	1,314.80	880.33

억 입방미터의 수자원도 강점을 갖는다. 수목, 곡물류, 약용식물, 동물, 수중생물 등 생물자원도 다양하게 존재한다. 특히, 돼지, 담배, 누에고치, 밀감 산출량 등에서 앞선다.

중경은 이른바 三線(基地)建設이 대표적인 도시이다. 三線建設은 '60년대 중반 이후 중소의 대립과 월남전으로 야기된 위기의식에서 전시체제를 구축하고 군수공업의 증강 템포를 가속화 시키기 위해 내륙부에 중공업과 국방산업의 후방기지(三線基地)를 건설한다는 프로젝트였다. 삼선지역으로는 사천, 귀주, 운남, 섬서성 등이 포함되는데 중경도 중요한 후방기지 역할을 수행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전환경제체제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이 국방산업의 민수전환 문제가 중경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서 계획경제하의 국유기업 적자문제와 제품의 국경경쟁력은 풀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 중경은 대폭적인 산업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기존의 자동차·오토바이, 화학산업(의약품 포함) 철강산업, 전기, 건재, 식품 등 6개이던 육성 대상업종을 자동차·오토바이, 화학, 철강 등 3개업종으로 축소한 것이다. 자동차산업은 전국 5대 생산기지의 하나로 중국 전체의 7.9%, 중경시 공업생산액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오토바이 생산은 중국 전체의 1/4을 차지하고 있다. 소형승용차와 오토바이는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이다. 화학산업은 매장량이 2,700억㎡에 달하는 중국 최대의 '川東천연가스田'을 보유하고 있어 기존산업의 투자확대와 신규진입도 진행중이며 철강산업으로는 '중경철강', '중경특수강' 등이 있으며 중국 9대 제철기지의 하나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경직할시의 국민총생산액은 1,031.05억위원으로 사천성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成都市는 713.67억위이다. 공업경제현황을 살펴보면 鄉급이상 기업 및 생산단위수가 13,468개, 공업총생산액이 645억 5,664만위원으로 成都市의 6,897개 492억 9,508만위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 각 산업별 생산액을 成都市와 비교해 보면 석탄, 방직, 전력 석유가공, 화학공업, 철금속, 일반기계, 운송기계, 의료기기 부분에서 우위에 있다.

#### 과학기술자원

중경시는 400여개의 과학기술연구소와 40여만명의 전문인력들을 보유하고 있다. 23개의 일반대학과 36개의 전문기술학교가 설립되어 있으며 음향학, 광학, 전기공학, 컴퓨터과학, 표준측정, 신재료, 약학분야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중점대학으로 선정된 곳은 중경대학, 서남교통대학, 전자과기대학, 중경건축대학, 서남농업대학, 華西의과대학이며 그밖에도 중경우전학원, 중경교통학원, 서남공학원, 중경의과대학 등이 있다.

정부부문 연구개발기구 및 정보문헌기구 인력은 12,154명('95년 현재)이며, 이중 과학기 및 공정사는 4,232명이다. 정부부문 연구개발 기구의 예산은 4억5,146만원으로 이중 정부지원은 1억168만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공공부문의 전체 과학기술인력을 살펴보면 413,368명으로 사천성 전체 인력의 27%를 점한다. 부문별 인력을 구분해보면 다음 <표 2>와 같다.

「重輕 高新技術產業開發區」는 1988년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는데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경제체제개혁위원회가 지정한 5개의 실험개발지역 중의 하나였다. 위치는 沙坪峴구와 和南岸區에 걸쳐 건설되었으며 면적은 20km<sup>2</sup>인데 石橋 鋪 高科技園, 南坪高新技術工業園, 石壩路科技街와 沙中路科技街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1800여 기술집약적 기업들이 입주해 있는데 이 중 150개가 외국투자기업이다. 주요기술분야는 전자, 통신, 메카트로닉스, 바이오 엔지니어링, 정밀화학, 의약품, 컴퓨터 응용개발, 환경보호시설, 측정기구 등이다. 첨단기술의 산업화를 위한 보육기지와 파일럿 플랜트 기지 등이 구축되어 있으며 2000년까지 8억 원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다.

#### 향후전망

중경직할시 승격이후의 주요 과제는 첫째, 삼협댐 이주민들을 생산현장에 적절하게 투입하여 댐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문제이며 둘째, 양자강 상류지역의 경제적 센터로서의 기능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중경직할시의 전반적인 능력을 고양시키는 문제 셋째, 대규모 도시의 도시와 농촌지역간 공동발전전략을 도출하는 문제 등이다. 이와같은 과제를 달성하는 데에는 120여만명 댐이주민의 적절한 정착, 300만 이상 주민의 극빈자 탈출, 생태계를 유지하면서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일, 그리고 환경오염을 규제하는 일 등 4가지 난제를 풀어야 한다.

중경직할시는 향후 3개의 지주산업과 6개의 우위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며 30개 이상의 경쟁력 있는 브랜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지주산업으로는 모토사이클 제조업, 야금, 화학 및 의약품이며 우위분야는 전기기계, 전자정보, 식품가공, 건축재료, 세라믹, 일반 화학이다. 삼협댐을 비롯한 대형국가중점 프로젝트와 인프라 구축에 많은 외국자본과 기술을 유치할 예정이다. 크게 3단계에 걸쳐 유치할 예정인데 1단계는 향후 5~6년간 외국투자에 대한 우대정책의 지속이다. 두 번째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외국과 중국기업들이 경쟁을 장려하고 세 번째 단계는 낮은 오염, 하이테크, 적은 국내시장점유율을 도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둔다는 계획이다.

1996년말 현재 중경시의 해외수출입은 89억 8천만달러이며, 26억 2천만달러의 외국투자가 이루어졌는데 이와같은 가향쪽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천성 중경시에서 중앙정부 직속의 중경 직할시로 승격시킨 이유도 양자강 발전 전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외국자본 및 기술의 효율적인 유입에 있기 때문이다.

<표2> 중경직할시 공공부문의 과학기술인력(專業技術人力)

엔지니어링	농업기술	의약기술	과학연구	교육	합 계
63,833	9,001	44,896	682	195,505	413,368

자료: 「四川統計年鑑」(1996), p.461.

주석 1) 대외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행정학 박사(Tel: 02-250-3073)

